

▶ 이들에 만난 사람

••• 오봉국 대한양계협회 고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년을 맞은 월간양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오봉국 1925 평남 진남포 어호리 생
1956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1955~57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석사)
1965~68 호주 시드니 대학(농학박사)
1969~9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1969~70 제3대 한국가금학회(대한양계협회 전신) 회장
1969. 11 월간양계 창간
1983~87 한국가금학회 회장
1987~8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
1990~94 세계가금학회 아태지역연합회 회장
1991~2001 한국국제양계박람회 추진위원장
1991~현재 대한양계협회 고문
2001~현재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상임고문
☆저서 : 현대가금학 등 다수
☆수상 : 국민훈장 석류장(82), 국민훈장 모란장(91),
대한미국 학술원 학술상(91)

본고는 지난 1960년대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가금학을 전공하여 이를 국내 양계현장에 접목시키고, 사양가들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닭 검정사업의 기초를 다지는가 하면, 양계관련 정보를 양계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969년 월간양계를 창간하는 등 양계업 발전의 초석을 다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 대한양계협회 고문을 맡고 계신 오봉국 박사를 만나 월간양계 창간의 의미와 앞으로의 양계업 발전 방안을 들어보았다.

오봉국 박사는 20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양계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40년간 대학에서 가금학을 연구하며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현재는 1991년 대학을 정년퇴임한 이후부터 양계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양계박람회와 축산박람회를 국제수준으로 이끌어 오는 등 양계산업은 물론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박사는 남은 여생도 양계와 함께 살아갈 뜻을 밝히고 항상 양계산업의 미래를 걱정해 주고 계신다.

-편집자주 -

Q 월간양계가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월간양계를 창간하신 분으로서 강희가 남다르실텐데요?

월간양계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월간양계는 물론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현재 월간양계 발간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양계협회장을 비롯한 흥보팀 및 임직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월간양계 창간 35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뿐듯 한 것은 그동안 월간양계 발간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5년(통권 421호)동안 결간없이 발간이 되면서 전체 양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며, 계재 내용도 과거에 비해서 더욱 충실했고 편집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월간양계가 1969년 11월에 탄생되었는데 월간양계 창간 의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양계업의 초창기인 1960년대 전후의 양계산업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1957년 미국에서 가금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후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1959년 2월초 서울 장안동에서 월 1회씩 양계사양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서울·경기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을 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 주관으로 1963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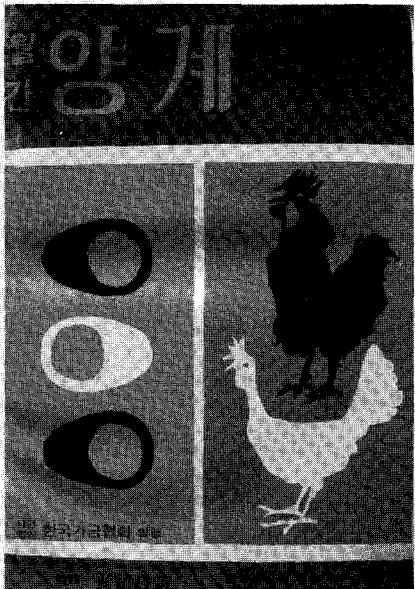


미국 미네소타대학으로 부터 종란을 국내에 도착시키는 오봉국 박사(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순회양계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례 강습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지방에 있는 양계인들이 참여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1년에 한번 있는 지방 순회강습회로 대신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교재라고는 본인이 직접 만든 육추일지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12월 제4대 가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에 있는 양계인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양계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부회장으로 있었던 박도현, 강금로 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수개월 전부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월간양계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Q 창간을 전후해 어려움이 커다고 들었는데요.

월간양계를 창간할 당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발간이 되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1969년 11월 발행된 월간양계 창간호



양계업 초창기에 양계인들의 유일한 지침서였던 육추일지

었고 해서 당시 약품, 사료, 기자재, 부화장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최소 3개월까지의 제작에 필요 한 내용과 경비를 조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간양계가 창간된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2~3회정도 출판되면 폐간될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도 그렇지만 원고를 수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제자들이 업계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했고 제일사료, 유한양행 등 굴지의 회사들로부터 장기간 광고계약을 이끌어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학교수들도 원고료를 받지 않고 원고를 기꺼이 써주는 등 월간양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초대 편집장을 맡았던 김영옥(현 제일사료부회장)씨가 학교에서 상록지를 편찬하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밤낮을 지새며 노력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있으며, 당시 협회 총무부에 있던 이재식(현 양계협회 이사)씨가 협회 살림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추었던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계인들의 주소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우편상황이 나빴던 당시 전국의 양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을 업체의 협찬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어 해결하는 방안 등 월간양계 발간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함께 고민해준 당시 한국비타민헤드쿼터쓰사에 근무하던 신정재(현 에스에프 회장)씨의 도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시 월간양계 발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양계관련인은 물론 사료, 약품, 기자재, 부화 관련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월간양계, 양계협회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월간양계 창간 이후 양계업은 타 축종에 비해 앞서 나갔고 타 산업을 리드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전달해 준 월간양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계산업 뿐만아니라 모든 산업이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산업과 식품안전성이 중시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월간양계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양계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계협회 또한 금년 정부에 제시한 양계산업 발전대책을 중심으로 국내 양계인들은 물론 양계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원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양계인들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중심의 안전성 문제가 강조되는 시대에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램이 있으시다면?

금년 2월 '닭과함께 80년'의 회고록을 내면서



검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오박사(지금도 양계업계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도 항상 일찍 일어나고 후배, 제자들과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협회 고문과 닭경제능력 검정사업의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양계와의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정사업은 1959년 서울시 축협에서 다산경진대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운영심의관으로 참여한 바 있었는데 1963년부터 외국종계와 실용계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협회의 검증없이 닭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무던한 노력으로 1964년부터 협회주관으로 검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았던 있는 검정사업이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은 물론 양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고유의 한국재래닭 육성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재래닭고품질육용화사업이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업화를 이루는데는 아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겠고 본인도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월간양계의 창간 35주년을 축하하며, 양계협회 및 양계인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